

『시간의 책장』 독서 활동지_배경 지식 활성화하기

※ 정조 임금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찾아봅시다.

역	재	사	을	계	열	영	치
속	사	도	세	자	과	장	조
사	실	인	건	선	살	짓	곽
규	허	성	야	신	물	통	각
장	의	화	기	심	해	거	자
각	대	원	이	럽	섯	통	세
만	들	수	로	스	상	구	공

- 사도세자의 아버지이자, 정조의 할아버지로, 조선 후기 탕평책과 균역법을 실시하는 등의 업적을 남긴 조선의 임금. ()
-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로,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. ()
- 시전상인들만의 특권적인 상업행위를 비시전 상인들에게도 허용하는 정책. 모든 품목을 누구나 팔 수 있게 해준 것. ()
-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자, 학술 및 정책을 연구했던 관서. 1766년(정조 즉위년)에 궐내에 설치함. ()
- 수원의 도심 전체를 둘러싼 전체 5.4km 가량의 읍성 형태의 성곽. 정조가 아버지 묘를 인근으로 옮기고 현릉원이라 이름 지은 후, 다산 정약용에게 설계를 명해 완공한 곳. ()

『시간의 책장』 독서 활동지_배경 지식 활성화하기(답)

※ 정조 임금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찾아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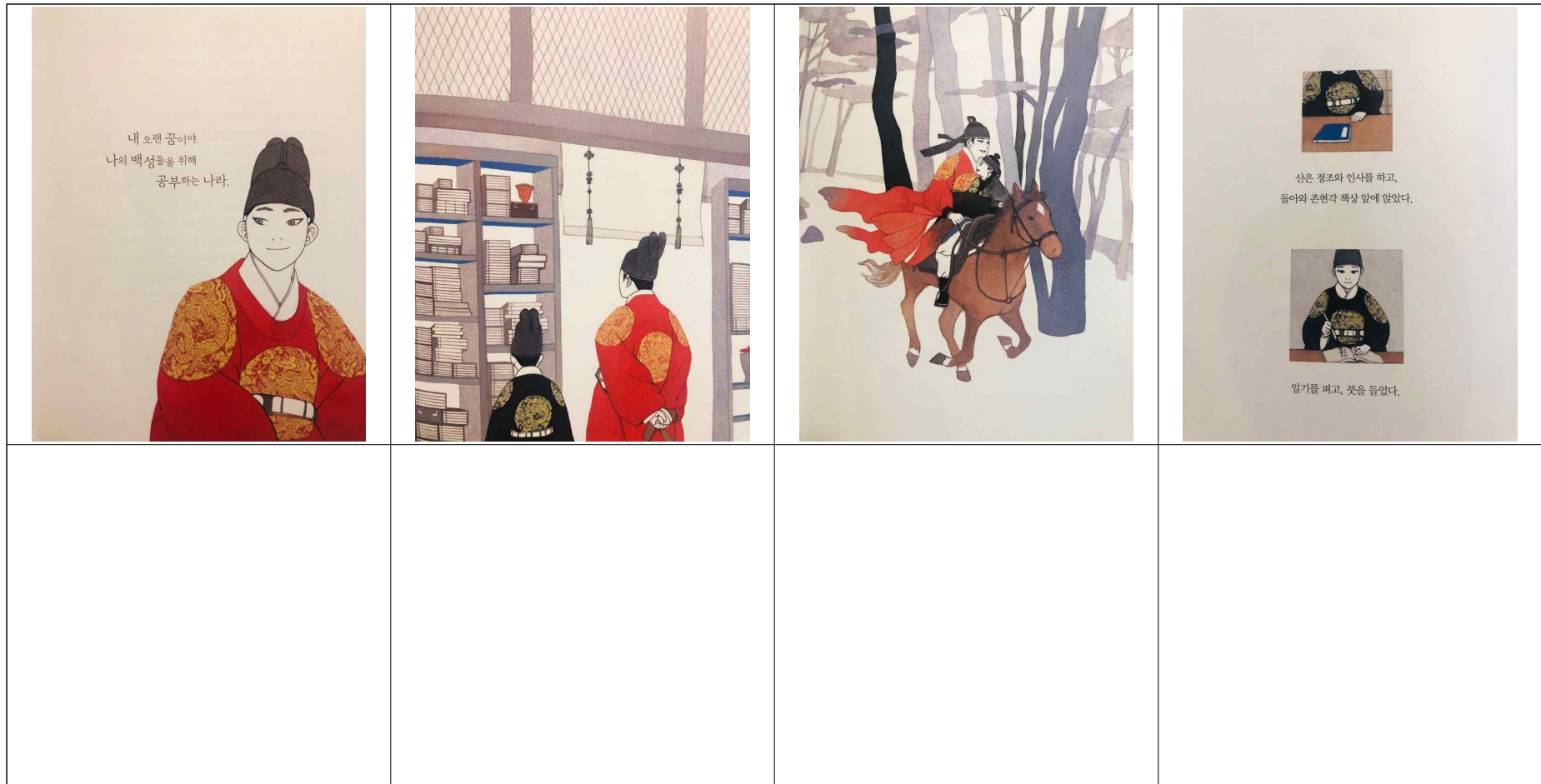
역	재	사	을	계	열	영	치
속	사	도	세	자	과	장	조
사	실	인	건	선	살	짓	곽
규	허	성	야	신	물	통	각
장	의	화	기	심	해	거	자
각	대	원	이	렵	섯	통	세
만	들	수	로	스	상	구	공

- 사도세자의 아버지이자, 정조의 할아버지로, 조선 후기 탕평책과 균역법을 실시하는 등의 업적을 남긴 조선의 임금. (영조)
-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로,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. (사도세자)
- 시전상인들만의 특권적인 상업행위를 비시전 상인들에게도 허용하는 정책. 모든 품목을 누구나 팔 수 있게 해준 것. (신해통공)
-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자, 학술 및 정책을 연구했던 관서. 1766년(정조 즉위년)에 궐내에 설치함. (규장각)
- 수원의 도심 전체를 둘러싼 전체 5.4km 가량의 읍성 형태의 성곽. 정조가 아버지 묘를 인근으로 옮기고 현릉원이라 이름 지은 후, 다산 정약용에게 설계를 명해 완공한 곳. (수원화성)

『시간의 책장』 독서 활동지_내용 정리

※ 『시간의 책장』에 등장하는 그림을 보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.

	 <p>내가 너란 말이다. 스물다섯 살의 너!</p>	 <p>이루도 민중을 두렵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외로운 일인지 알아?</p>	



※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?

『시간의 책장』 독서 활동지_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

※ 『시간의 책장』에서 미래에서 온 정조가 11살 이산에게 두려움에 떨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줍니다.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? 25살이 된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지 써 봅시다.

<25살 정조 임금이 11살 이산에게>

“걱정 마, 할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니까. 지금처럼 잘해 드려. 너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, 할아버지 곁에. 네가 살아남으려면 할아버지 곁에서 지금처럼 신뢰를 얻어야 해. 할아버지가 널 지켜 주지 않으면 넌 왕이 될 수 없어.” p.28

“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.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두 알면서 쉬쉬하고 덮어 두려 하는 건,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지. 그런데 과거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. 과거를 제대로 인정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. 안 그래?” p.54

“과거는 현재의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강과 같아.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, 오늘이 내일로 흐르지. 너의 오늘이 너의 미래야.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.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해. 그래서 일기든 실록이든 기록이 중요한 거야.” p.73

“매일매일 연습했으니까 슬플 때마다, 고통스러울 때마다, 두려울 때마다, 미울 때마다.” p.83

<○○살 ○○○이 ○○살 ○○○에게>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『시간의 책장』 독서 활동지_정조 임금 인터뷰

※ 정조 임금에 대해 내가 아는 내용과 『시간의 책장』 내용을 떠올리며,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해 봅시다.

정조

정조 임금님 안녕하세요?

나

정조

나

정조

나

정조

나

정조

나

정조

나